여수~거문도 뱃길 파행 주민 반발

임차기간 만료로 2척중 1척 휴항… 대체 선박 없어

관광수입 지장 초래… 주민, 상가 철시 등 실력행사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주민들이 여수와 거문도·백도간 여객선들의 파행운항에 항의, 상가 철시와 여객선 입출항 통제 등을 주장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거문도 주민들에 따르면 여수와 거문도·백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유람선의 파행운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관광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여수~거문도간 항로에는 오가고호와 백령 아일랜드호 등 2척의 여객선이 운항을 해오다 지난달 13일 임차 운행해오던 백령 아일랜드호가 임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선사측이 휴항한 후 아직 대체 선박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호로 수려한 풍광을 가진 백도와 거문도간 관광객을 실어나르던 모비딕호가 최근 다른 항로로 취항하는 바람에 백도 관광객 운송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모비딕호는 270t이 넘는 대형 여객선으로 백도 관광객을 모두 소화할 수 있었으나 최근 대체 투입된 태양호 등 2척의 배는 각 18t, 38t의 소형 유람선이어서 관광객 수송에 한계를 드러내 많은 관광객이 백도를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이날 오후 여수 지방항만청을 항의 방문해 "선사들의 '제멋대로 운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가 철시 등 일제휴업과 함께 여객선 입출항 통제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거문도 주민들은 지난달 26일에도 백령 아일랜드호가 휴항한 데 항의, 여수 항만청을 방문해 휴항 여객선사 면허취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수 항만청과 여수시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대체선박 조기 투입, 파행운행 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방산 윤정기' 유물 공개

강진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외손자이자 수제자로 다산의 학예를 계승 발전시킨 방산(舫山) 윤정기(1814~1879)의 친필 유묵(遺墨)과 집안 고문서(古文書) 등 50여점을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나명주기자 mjna@

낙안읍성 세계유산 등재 신청

다음달 등재 여부 결정

순천의 낙안읍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순천시는 문화재청이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등재목록으로 선정한 8건 중의 하나인 낙안읍성에 대한 공식등재 추진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최근 요청함에 따라 3일 신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문화재청의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달께 유네스코로 송부돼 공식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한국의 역사마을은 크게 경북 안동 일대의 씨족마을과 낙안읍성 같은 읍성마을로 구분되는데 특히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한양과 같이 계획된 중세 계획도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읍성마을의 형태가 현재까지 가장 잘 남아 있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유산은 세계적으로 145개국 878건이 등재됐고 우리나라 등재건수는 석굴암 불국사 등 9건(문화유산 8, 자연유산 1)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음식 맛 없으면 환불해드려요"

백양사 휴게소 '음식맛 보상제' 눈길

하이브리드 차량 LPG 30% 할인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한국도로공사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소장 이백섭)가 이색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논산방향 백양사 휴게소는 고객이 식사도중 음식맛이 없다고 여길 경우 무조건 환불이나 다른 메뉴로 바꿔주는 '음식맛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휴게소 직원들이 65세 이상 노인고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주문부터 차량탑승까지 도와주는 '경로우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 150개 휴게소가운데 4번째로 각종 여행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행정보 안내 시스템'을 종합안내소앞에 설치했다. 여행객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안내시스템을 이용해 휴게소 인근은 물론 전국의 관광지를 비롯해 맛집·숙박·특산물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

특히 순천방향 백양사휴게소 LPG충전소에서는 최근 출시된 LPi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LPG가격을 30%할인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LPi 하이브리드 차량은 LPG와 전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백양사휴게소 이백섭 소장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흙·불 그리고 인간' 강진 청자축제

8~16일 오감체험·왕실행차 퍼레이드 등 행사 다채

8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인 '제37회 강진 청자축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강진군은 '흙·불 그리고 인간(土·火 & 人)'이라는 주제로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원에서 '제 37회 강진청자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청자축제는 직접 만들어보고, 감상하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오감(五感)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강진 청자축제는 기획행사를 비롯한 전시·공연·체험·부대행사 등 5개 부문 111개 프로그램이 만남(8일), 외국인(9일), 희망(10일), 여성(11일), 실버(12일), 가족(13일), 화합(14일), 청소년(15일), 약속(16일)의 날 주제에 맞게 운영된다.

개막일인 8일 오후 100여척의 선박이 강진만에서 펼치는 개막축하 퍼레이드와 고려왕실 행차 퍼레이드를 비롯해 1천 개의 청자종(鐘), 30여 개의 대형 청자등(燈), 500개의 바람개비 등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고려국 말마차 여행, 고려 민속체험, 추억의 글 담기 청자벽돌 체험, 고향 할머니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한편 강진 청자축제에 앞서 지난 3일 청자보물선 '어기어차 온누비호'가 300여 점의 청자를 싣고 마량항에서 출발, 북방한계선(NLL)까지 청자운송 뱃길 재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완도 전복소비 촉진 홍보·판촉

'전복생산자의 날' 행사

국내 최대의 전복 생산지인 완도에서 전복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졌다.

완도군 노화·보길·소안·청산면 등 4개 읍·면 전복양식 생산자협회는 최근 노화 이포리항에서 '제 1회 전복생산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국회의원(민주당), 김종식 완도군수, 차용우 군의회의장, 최현국 노화 전복생산자협회장, 군의원, 번영회장, 노인회장 등 각급 유관단체장과 어민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완도 4개읍·면 전복 생산자들의 단합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완도전복을 이용해 만든 각종 요리 시식회 등이 마련됐다.

최현국 노화 전복생산자협회장은 "전복생산 어민들의 화합으로 전복양식업에서 전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국내소비 촉진과 해외 수출을 위한 판촉·홍보에 순발력있는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청정해역에서 다시마와 미역등만 먹여 양식한 완도전복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군 노화·보길·소안·청산면 등 4개 읍·면 1천754어가에서는 전복 4억7천758만4천여 미를 양식, 연간 1천4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장흥 한우육포 인기 '짱'

'한방육포'도 개발 중

장흥군에서 토요시장 한우를 원료로 한 '장흥 토요시장 한우육포'가 출시하자마자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며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예로부터 육포는 소고기를 얇게 잘라 양념한 후 그늘에 장기간 건조시켜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참기름을 발라 술을 곁들여 대접했다는 문헌이 있을 정도로 귀하고 만들기 번거로운 음식 중 하나였다. 이런 육포를 이제 정남진 토요시장 한우와 더불어 손쉽게 맛볼 수 있게 됐다.

한우 육포는 장흥 토요시장에서 판매중인 소고기 중 우둔·홍두깨살·설도·양지 등으로 가공 장흥한우의 우수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장흥군은 육포 문화의 고급화를 선도하고 고급육포에 대한 잠재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한방육포'를 개발해 일반 육포와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육포 가공공장 유치를 추진중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나주 문평어머니방범대

학교폭력 등 치안 활동

나주경찰서 문평파출소(소장 공경현)가 관내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문평파출소는 최근 민·경 협력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문평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조직, 활동에 들어갔다.

15명으로 구성된 방범대는 노약자 교통안전, 청소년 선도 등에 대한 활동과 함께 학교폭력, 성범죄 예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게 된다.

공경현 소장은 "관내 치안 유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